

# 남원 춘향제 8주간 주말 분산 개최

4월3일부터 5월19일까지

코로나 시대 지역축제 새 시도

온라인·오프라인 행사 함께 진행

남원시가 춘향제를 두 달 동안 주말에 분산 개최한다. 코로나19를 예방하면서도 지역축제를 살리기 위한 새로운 도전이다.

남원시는 제91회 춘향제를 4월3일부터 5월19일까지 8주 동안 매주 토요일에 광한루원 일원에서 분산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4~5월에 단기간 열렸으나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이다.

축제 형식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행사를 적절하게 섞는 방식으로 바꾼다.

구체적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상황을 보며 확정할 계획이다.

주요 행사들은 춘향제 유튜브 채널 '남원외곽'을 통해 중계하고 댓글을 통해 양방향 소통도 시행한다.

춘향제는 국내 예술축제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



남원시는 올해 춘향제를 8주 동안 매주 토요일에 분산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해 춘향제. <남원시 제공>

를 간직한 축제로 올해 91회째를 맞는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춘향제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축제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할 때

전면적인 오프라인 축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분산 개최라는 새로운 시도를 하기로 했다"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축제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kwangju.co.kr

# 고창군 농산물 통합마케팅...14개사업 33억 지원

고창군이 지역 농산물의 효율적인 유통과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물 통합마케팅'을 활성화한다.

고창군은 올해 통합마케팅 출자 실적 600억원을 목표로 총 14개 사업에 33억2000만원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고창군은 매년 통합마케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했다. 지난해는 통합마케팅 출자 실적 461억원으로, 전년 대비 103%가 증가했다.

올해는 생산자 조직화와 통합마케팅 활성화,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 체계 확충사업 등을 통해 농산물 유통구조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참여농가에는 안정적인 농산물 출하와 유통

비용 절감 효과로 농가 경영안정과 지역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강화한다.

농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과 생물권보전지역 농산물 유통 포장제 지원사업 등도 추진한다.

고창군은 앞서 지난해 말 고창군원예발전협의회를 열어 통합마케팅 관련 지원사업의 세부계획을 검토·확정했다. 협의회는 통합마케팅 수수료를 전년 대비 0.25% 낮춘 1%로 결정해 참여농가의 유통비용을 줄였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통합마케팅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고창의 명품농산물을 일원화된 유통창구로 집중 출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새들마을 사업이 진행되는 순창군 유등면 버들지구 유촌·유천마을.

<순창군 제공>

# 순창군 유촌·유천마을 21억 들여 새들마을사업

순창군은 버들지구 농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지역행복생활권 정책' 공모에 지난 2019년 선정되며 추진되고 있다.

유등면 버들지구(유촌·유천마을) 새들마을사업은 농촌의 취약하고 낙후된 마을에 대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순창군은 유촌·유천마을에 국비 포함 총 21억 6000만원을 투입해 지역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 보장을 위한 주거환경개선과 경관 조성, 생활 인프라 확충, 위생·안전 확보, 휴먼케어, 주민 역량강화사업 등을 진행한다.

순창군은 지난해 농식품부의 기본계획 승인과

세부설계를 완료했으며 주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슬레이트가 포함된 빈집과 경관저해시설을 모두 철거했다.

현재 생활인프라 구축을 위한 집수리, 지붕개량, 화장실 정비, 재해위험주택가 옹벽쌓기, 마을 하천 복개, 안길확장 및 담장정리 등 마무리 공사를 진행 중이다. 새들마을사업은 주택 정비, 안전 확보, 생활인프라 개선, 주민역량강화사업 등 4개 분야에 걸쳐 사업을 진행해 오는 2022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순창군 관계자는 "버들지구 새들마을사업은 주민주도형 사업으로 마을 의견을 수시로 접수해 주민들과 함께 취약한 환경 정비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순창=정영근 기자 jyg@

# 전북서남상의 회장에 최종필 신정주포장 대표 추대

전북서남상공회의소 제24대 회장에 최종필 <사진>(유)신정주포장 대표가 추대됐다.

16일 서남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당초 최 대표를 포함해 4명의 회장 출마가 거론됐으나 출마예정자의 이해와 협력으로 최 대표를 단일 후보로 추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회장을 합의를 추대함에 따라 서남상의는 선거철 차를 거치지 않고 최 대표를 비롯해 기존 66명의 원 전원이 제24대 의원으로 확정됐다. 회장 등 임원 선출은 오는 26일 진행된다.



최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에 어려운 중책을 맡게 됐다"며 "회원들 간 소통과 화합, 권익 증진에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정읍 출생인 최 대표는 정읍고, 원광대를 졸업했으며, 서남상의의 원·부회장으로 활동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정읍시 '적극 행정' 우수 행안부 평가...전북 유일

정읍시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에 대한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읍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0년 지방자치단체 적극 행정 종합평가'에서 정읍시가 전북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적극 행정' 문화 정착을 위해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 행정 제도 정비 ▲적극 행정 실행 계획 수립 ▲적극 행정 실행계획 이행 성과 ▲적극 행정 주민 체감도 ▲소극 행정 효과 등의 항목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유진섭 시장을 포함한 공무원들은 지난해 적극 행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공직 내 적극 행정 분위기 확산과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시민이 공감하고 공무원이 실천하는 '적극 행정 공직문화 조성'을 목표로 적극 행정 운영조례를 제·개정하며 선제적인 제도 정비에도 앞장섰다.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과 공무원 보호 지원, 적극 행정 실천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행정문화 확산과 동기부여에 기여했다.

유 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정을 믿고 협조해 주신 시민들과 공직자들의 덕분"이라며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먼저 움직이는 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 군산 무녀도, 광역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개발

398억 투입 2024년 개장 목표

해양관광 명소 군산 무녀도가 광역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로 개발된다.

새만금개발청은 군산 무녀도 광역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개발을 위한 사업시행자로 군산시를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398억원(국비 193억5000만원, 지방비 204억5000만원)을 투입해 수상레저와 산림휴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를 조성한다.

군산시는 올해 말까지 통합 개발계획을 승인받아 2024년 개장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다. 사업 대상지는 '수상레저체험 구역'과 '산림휴양힐링 구역'으로 나뉘며 구역별 특색을 담은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수상레저체험 구역은 실내서핑, 카누 등 각종 수상스포츠를 즐기고 경험할 수 참여형 체험공간으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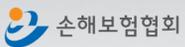
산림휴양힐링 구역은 트리탑체험원, 글램핑 등 체류형 산림휴양 기능을 도입해 청정 자연의 절경 속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양종모 새만금개발청장은 "'복합단지가 개장하면 해마다 5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군산 무녀도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위치도.



## 딱 한잔 드셨습니까?



2019년 6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어 딱 한 잔만 마셔도 처벌되고 단속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래도 음주운전하시겠습니까?**